

◆ [Focus] 미 환경보호청,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 발표

◆ [What's News]

- (고용) 미국 제조업 중흥을 위해 해외 인력 수급이 중요 과제로 대두
- (거시경제) 美 소매 판매, 두 달 만에 증가세로 반전
- (IPEF) 3차 협상 라운드 종료... 디트로이트로 향하는 시선
- (친환경) 프랑스, 美 IRA 대응으로 친환경 보조금 지급 법안 추진

◆ [Top Headlines]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FOCUS

[친환경] 미 환경보호청,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 발표

1. 개 요

□ 미국 환경보호청(EPA)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안 발표(5.11)

- 강화된 기준으로 2038년 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기대
 -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태우는 화력발전소 대상 680p에 달하는 배출 기준 강화안 발표
 - 이번 발표로 발전소는 203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거의 전부 (nearly all) 감축하거나 탄소 포집 및 저장(CCS), 혼합 연소 발전 (co-firing) 등 친환경 기술 활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
 - EPA는 새 기준안 적용으로 발전 산업에 10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지만, 배출 감소에 따른 건강·환경에 미치는 효과는 약 8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발표
 - 뉴욕타임스는 이번 규제안을 “미 연방 정부 차원에서 화력발전소들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명시한 최초의 규제”로 보도

- 美 행정부, 두 번의 기존 발전소 CO₂ 규제 시도 모두 무산
 -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'청정 전력 계획(Clean Power Plan)'을 통해 각 주의 배출량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청정 연소나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시도했으나 대법원 행정부의 초과 권한 행사 판결로 무산
 -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'경제적인 청정에너지(Affordable Clean Energy)' 규정을 통해 석탄 발전소 대상 기존 보다 좁은 개념(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개선 사항으로만 제한)의 규제를 시도했으나 하급 법원에서 기각

2. 주요 내용

□ 신규 규정안 주요 내용

- 개별 화석 연료 발전소가 충족해야 하는 새롭고 훨씬 더 엄격한 규정
 - 오바마 정부에서 제안한 규정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, 주 별 목표가 아닌 기존 화석발전소 및 신규 발전소를 개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다 엄격한 규정으로, 주 정부의 준수 계획과 더불어 EPA 승인 필요
 - 2022년 미국의 전력 생산량 가운데 화력발전소의 비중은 60%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25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신규 기준안 도입으로 2042년까지 최대 6억1천700만톤의 CO₂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도
 - EPA가 제안하는 주요 기술 기반 표준으로는 아래 내용을 포함
 - 화석연료 고정 연소 터빈에 대한 현재의 NSPS (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) 강화
 - 화석연료의 연소 시 증기를 생성하는 EGU의 탄소 오염을 제한과 관계된 주(state) 별 오염물질 배출 지침 수립
 - 기존 화석연료 연소용 대형 고정식 터빈에 대한 배출 지침 수립 등
 - EPA는 이번 규정에 따라 2028년에서 2040년 사이에 석탄 사용이 78%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, 천연가스 발전소 대상으로도 별도의 강화된 기준을 제안
- * 20~50% 가동 시간의 발전소의 2032년 까지 수소 등 혼합 연료 사용 의무 등

3. 현지 반응 및 전망

- 청정에너지 활용 및 탄소 포집 등 탄력, 정부 보조금 역할 중요 지적
 - EPA는 이번 더 엄격해진 배출 규제로 2028년에서 2042년 사이 6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의 대기 유입 방지를 기대
 - 또한 2040년까지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 대부분의 폐쇄 또는 청정연료 및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노력이 강제될 전망
 - 현지 언론은 신규 탄소 포집 등 기술 도입을 위해 인프라법,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등 정부의 최근 보조금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
- * BloombergNEF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포집 기술 및 저장 용량의 거의 절반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
- 경제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주(州)와 발전업계는 우려와 반발
 - EPA의 이전 탄소 배출 규정에 대한 법정 다툼을 주도했던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“연방정부의 월권에 대한 투쟁을 다시 이끌 준비가 됐다”, “그 전술은 용납될 수 없으며, 이 규칙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된다.”라고 강하게 반발
 - 상원 조 맨친(Joe Manchin) 에너지 위원장은 “이번 급진적인 규제로 모든 EPA 후보자(nominee)에 반대할 것”이라며 에너지 안보와 신뢰성에 대한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석탄 및 가스 발전소를 규제하고 있다”며 반발
- * 정치코는 이번 규제로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주요 전력원인 많은 노후 석탄 발전소의 폐쇄가 앞당겨 질 것으로 보도
- 석탄 채굴 부문을 대표하는 국가채굴협회(national mining association)는 탄소 포집 기술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, 미국 내에서도 18개의 주는 전력 생산의 큰 부분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며 우려 목소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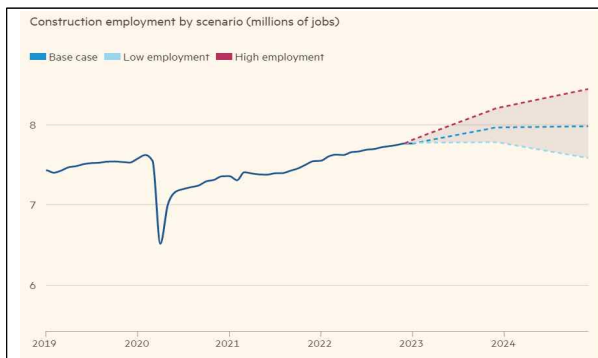
※ 이번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시 후 60일 간 공청회 및 논평을 바탕으로 시행 예정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김준희
■ 자료원	EPA(5.11), 폴리티코(5.11), 워싱턴포스트(5.11), 블룸버그(5.16)

□ **(고용) 미국 제조업 중흥을 위해 해외 인력 수급이 중요 과제로 대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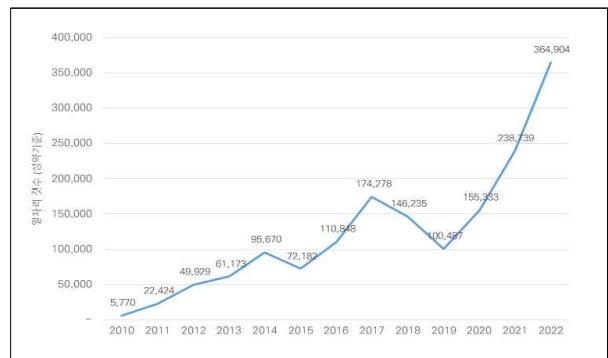
- (개요) 미국 반도체·친환경 산업 정책 성공을 위해 이민 개혁 시급 주장
 - 해외 인력 수급 실패 시 IRA 및 Chips Act 통과 이후 전국적으로 발표된 80여 건의 관련 투자 프로젝트 지연 불가피 전망
- (상세) 미국 내 건설 노동자 및 엔지니어 등 고급 인력 수요 폭증
 - 제조업 시설 건설을 위해 최소 50만 명의 건설 노동자 추가 필요 전망
 - 향후 10년 동안 30만 명의 엔지니어와 9만 명의 기술자 부족 예상
 - ASML, 인텔, 삼성, Texas Instrument 등 기술 기업들은 미국 의회를 상대로 첨단 STEM 전공자를 영주권 쿼터에서 면제할 것을 요청 중
- (참고) '22년 미국 내 제조업 리쇼어링과 직접투자로 발생한 미국 내 일자리 수는 총 36만 개로 전년 대비 53% 급증
 - * 이중 전기차 배터리·반도체 관련 창출된 일자리가 전체의 53%에 해당

< 미국 내 건설 노동자 수요 전망 >



[자료] Associated Builders and Contractors

< 리쇼어링·FDI로 발생한 미국 일자리(누적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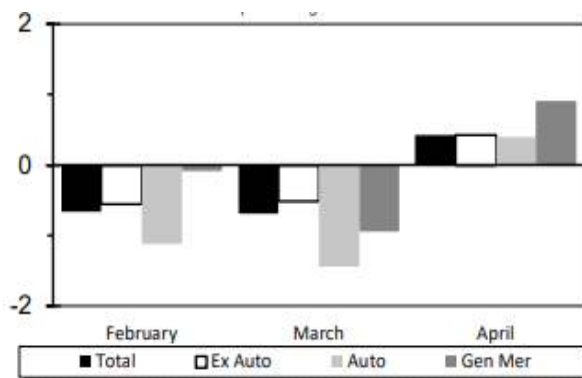
[자료] Reshoring Initiative Library data

- | | |
|-------|---|
| ■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|
| ■ 자료원 | Financial Times(5.16), Reshoring Initiative(3.23) |

□ (거시경제) 美 소매 판매, 두 달 만에 증가세로 반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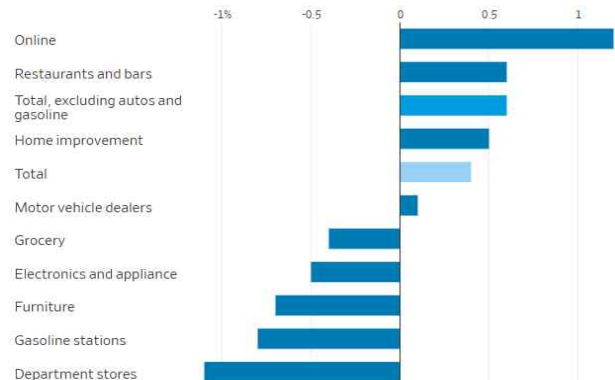
- (개요) 美 상무부 통계청, 소매와 식품서비스 전월 대비 0.4% 증가 발표
 - 월간 소매 및 식품서비스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'23.4월 미국 소매 및 식품서비스 매출 사전 추정치는 6,861억 달러로 전월 대비 0.4%(±0.5) 증가, 전년 4월 대비 1.6% 증가(5.16)
 - 1월 이후 인플레이션과 역대 최대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연이어 감소세를 보이던 소매 판매가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
- (상세) 자동차, F&B, 온라인은 소비 증가, 전자기기, 백화점, 가구 소비는 감소
 - 자동차 판매는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면서 1분기에 반등하기 시작, 높은 가격과 금리에도 많은 기업들이 매출 증가 추세
 - 전자기기(△0.5%), 가구(△0.7%), 주유소(△0.8%), 백화점(△1.1%)는 대조적으로 전월 대비 감소세 기록

<소매 및 식품서비스 매출의 전월 대비 변화율>



[자료] 미 통계조사국, 월간소매무역조사

<전월 대비 4월 소매 지출 변화>



[자료] 상무부, 월스트리트저널 인용

- (참고)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저가 상품 지출 증가
 - 저가 소매점 브랜드 상품을 더 많이 구입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할인 상품이나 창고형 할인점(월마트, 코스트코) 구매가 증가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박소현
■ 자료원	미국 통계청(5.16), 월스트리트저널(5.16)

□ (IPEF) 3차 협상 라운드 종료... 디트로이트로 향하는 시선

- (개요) 미 무역대표부(USTR) · 상무부, 3차 협상 라운드 종료 발표(5.15)
 - 미국은 2차 협상 라운드(발리, 3.15-19) 결과를 기반으로 네 필라 모두에 대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힘
 - * 이번 3차 라운드는 IPEF 장관급 회의(디트로이트, 5.27) 전 마지막 실무협상
 - 레이몬드 상무장관과 타이 USTR 대표가 참석할 디트로이트 장관급 회의에서는 진행사항 점검과 더불어 협상의 신속한 진전을 위한 실무자 대상의 방향성 제시가 있을 것이라 예고
- (상세) 세부 사항 미공개, 그러나 공급망과 디지털 관련 논의 진행 추정
 - 닷케이는 IPEF에서 반도체나 주요 광물 공급망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세부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보도
 - * 그 외 공급망 안정 관련 필수 품목 정보 · 대체 공급처 공유 방법 등 논의
 - 인도 언론은 미국이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 IPEF 참가국들 간 “관세 조정 및 수출 규제” 사전 예고제를 제안했다고 언급
 - 역외 데이터 이전,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관련 조항에는 선진국과 신흥국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
 - * 미국의 제안이 USMCA 요구수준보다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RCEP 회원이기도 한 신흥국들은 RCEP 수준을 희망할 것으로 전망
- (전망) 디트로이트에서 공급망 등 일부 필라 합의 가능성 있어
 - 닷케이는 이번 3차 협상이 디트로이트에서의 일부 의제 합의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보도한 가운데, CSIS도 디트로이트에서의 2~4번 필라 관련 초기 합의문 도출 가능성을 언급
 - 한편, 일부 진보단체는 빅테크 기업*의 IPEF에의 영향도를 우려, 디트로이트에서 라운드 테이블(5.19) · 시위(5.20) 등을 기획 중
 - * 블룸버그, USTR이 IPEF 구성 초기단계에서 아마존, 구글의 조언을 받았다고 보도

■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장석일

■ 자료원 | USTR(5.15), 닷케이(5.17), Financial Express(5.16), 폴리티코(5.13), 인사이드트레이드(5.9), 블룸버그(5.2)

□ [친환경] 프랑스, 美 IRA 대응으로 친환경 보조금 지급 법안 추진

- (개요) 프랑스, 자국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는 그린 산업 법안 발표
 - 저탄소배출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IRA를 포함한 외국보조금을 경계, 유럽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, 전기차 대상 보너스 등을 포함한 녹색 산업 법안(Green Industry Bill) 발표
- (상세) 친환경 기술 세액공제, 전기차 보조금, 신축 공장 허가 기한 단축 등
 - 프랑스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조정과 재생 에너지 장비, 히트펌프 및 배터리 제조사들이 자본 지출의 20-45%를 충당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세금 공제를 포함하는 법안 초안 공개
 - 배터리, 히트펌프, 풍력 발전용 터빈,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시 투자 금액의 25~40%를 세액공제 해주는 등 2030년까지 총 200억 유로 지원을 목표
 - 녹색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로 2030년까지 230억 유로 규모의 자국 투자 유치 및 수만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
 -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녹색산업법안에는 프랑스에 신규 공장을 설립할 때 허가 절차 마무리 기간을 최장 9개월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
- (참고) EU의 역내 투자 유치 노력 계속, 실제 추진 가능 여부는 지켜봐야
 - EU는 2025년 말까지 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미국 등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'매칭 보조금' 제도 도입도 추진하는 등 투자 유치 노력 계속
 - 한편, 블룸버그는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의 IRA와 유사한 'Buy European'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회의적인 브뤼셀과 다른 유럽 국가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
 - 프랑스의 녹색 산업 관련 법안 초안은 6월 상원과 7월 하원에서 검토 예정이나 정치적 지형상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박소현
■ 자료원	블룸버그(5.16)(5.11)

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Wall Street Journal	<p>The Return to the Office Has Stalled (실속에 빠진 “사무실로의 복귀”)</p> <p>기업들이 하이브리드 근무 정책을 유지함에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사무실이 공실.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지역경제 문제로 지역 정부는 출근 유도 인센티브 도입 검토</p>
The Washington Post	<p>Biden meets McCarthy, Hill leaders as liberals eye debt ceiling deal warily (부채한도 회동을 조심스럽게 주시하는 민주당)</p> <p>바이든 대통령이 화요일, 맥카시 하원의장 등 양당 의회 지도부와 다시 만나는 가운데, 민주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위해 공화당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우려 중</p>
New York Times	<p>Manchin Clashes Biden Administration Over Climate Law (맨친, 바이든 행정부에 IRA 관련해서 반기)</p> <p>조 맨친 상원의원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지 철회 의사를 내비치는 중. 맥카시 하원의장과도 부채상한 관련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</p>
CNN	<p>Home Depot's streak comes to an end (홈디포의 매출 상승 랠리 결국 종결)</p> <p>홈디포, '23.1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. 지난 3년간 인테리어 업계의 매출은 눈부신 성장 기록. 금리로 인한 주택경기 불황, 경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이 원인</p>
USA Today	<p>Biden cancels trip to Australia over debt ceiling talks, will travel to Japan (일본은 방문하지만... 바이든, 부채한도 협상으로 인해 호주 방문 취소)</p> <p>바이든 대통령은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는 참석하지만 호주 퀘드 회의와 파푸아 뉴기니 방문은 취소할 전망.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,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</p>

* 미국 동부시간 5월 16일 16시 기준

Notice

주요 경제 · 통상 일정

5.16(화)	4월 미국 소매 판매량(U.S. Retail Sales)
5.17(수)	4월 주택착공 허가건수(Building Permits)
5.18(목)	5월 2주차 실업수당신청건수(U.S. Initial jobless claims)
5.19(금)	뉴욕 연준총재 연설(New York Fed President Williams speaks)

□ **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**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☞헤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☞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3-15	6가지 통계로 보는 미 외국인직접투자(FDI) 동향 및 시사점	2023.05월
US23-14	미국 반도체 R&D 지원 정책 방향	2023.04월
US23-13	미 환경보호청(EPA)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4월
US23-12	미국 EV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및 현지 기관 정책 제안	2023.04월
US23-11	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탈탄소화 지원정책 현황	2023.03월
US23-10	2024년 美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3월
US23-09	美 의회의 대중경쟁 관련 주요 법안 내용	2023.03월
US23-08	美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방안 주요 내용	2023.03월

◆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**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 : [☞헤드림 심층보고서☞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2-기 획7	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	2023.01월
US22-기 획6	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	2022.12월
US22-기 획5	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	2022.12월
US22-기 획4	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	2022.11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☞유튜브 KOTRA TV☞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11 (2023.5.8)		
코인시-10 (2023.4.17)		